

지역 매아리

정읍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 고용유지 지원

정읍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 일센터)는 최근 재직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노무교육과 상담을 실시했다.

정읍새일센터 취업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랜 기간 경력단절을 겪었던 여성들이 새롭게 취업을 한 후 겪게 되는 직장 문화 적응과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휴가와 근로시간, 육아휴직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노동 관련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교육 후 1:1 고충 상담과 전문 노무 컨설팅을 통해 취업자들의 노동 관련 고충 해소에도 도움을 주었다.

한 참가자는 "알고 나면 쉬는데 모를 때는 어렵기만 한 노동 관련 법률을 쉽게 설명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직접 상담을 통해 컨설팅도 받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새일센터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 취업자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다"며 "여성 취업자들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하고 고용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모두가 행복한 복지 행정 실현

정읍시, 언론인 정례브리핑 가져... 주요 현안 사업·향후 추진계획 설명

정읍시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10월 첫번째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김형근 복지교육국장(국 포함 5개 과와 1개 사업소)의 주요 현안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형근 국장은 브리핑에 앞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읍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모두가 행복한 복지 행정 실현을 위해 국 소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에게 복지 도움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추진해가야 한다"며 복지교육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엔젤복지통신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건립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 ▲스포츠키링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누수와 낭비없는 사회 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



정읍시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소통 강화를 위한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요함을 인식하고, 살기 좋은 정읍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복지교육국의 모든 직원들이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취지에 맞춰 살기 좋고 편안한 정읍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정읍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시는 올해 2월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목요일에 시청 정례브리핑

을 갖고 있다.

정례브리핑은 시정방향·역점시책·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국·단·실과소장이 직접 브리핑을 담당하며 충분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브리핑은 경제환경국 핵심 현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추수철 농기계 안전 만전 기해야"

유기상 고창군수가 가을걷이 영농 현장을 찾아 안전한 추수를 당부했다.

유기상 고창군수가 10일 찾아가는 이동군청의 일환으로 고수면 문화마을경로당 앞 농기계 수리 봉사현장을 찾았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각 읍면을 순회하며 추수철 콤바인과 경운기, 건조기 등 각종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있다. 이날도 추수를 앞두고 많은 농민들이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 군수는 농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수철 농기계 끼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아닌건은 운행상태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광마크나 야간 반사테이프 등을 부착해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군수는 고수면 상평마을을 찾아 돌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청소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을 격려하고 "소외계층을 돕는 열력의 손길이 더 많아져 모두가 행복한 고창군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밖에 고수면의 6개에 걸쳐 응기를 빚고 있는 고창응기를 방문해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 8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고창 예코뮤지엄 구상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고창군, 고창예코뮤지엄 구상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열려

고창군의 수많은 역사자원과 아름다운 자연을 통합해 새로운 지역활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8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고창 예코뮤지엄 구상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예코뮤지엄'은 환경과 생태를 뜻하는 '에코(Eco)'와 박물관을 뜻하

는 '뮤지엄(Museum)'이 결합된 단어다. 지역 유산을 주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전승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뤄내는 '열린 박물관'을 의미한다.

용역을 담당한 친친북스는 고창읍성-고인돌유적-운곡읍지 구간을 대상으로 한 예코뮤지엄을 제안했다.

마을주민은 '마을배움터'를 통해 자원조사, 마을지도, 관광 프로그램

구상 등의 역할을 맡는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마을 박물관과 마을 주민의 도슨트 활용 등이 제안됐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의 역사와 생태, 문화자원을 보존 재생하고,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주민의 삶의 터전 자체를 관광 자원으로 하기 위해 짜임새 있는 기획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

제26주기 부안 위도 서해훼리호 사고 위령제 열려

위도 위령탑보존회(회장 신명)는 10일 위도 위령탑에서 유가족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주기 서해훼리호 사고 위령제를 열었다.

이날 부안군수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족과 동료들의 넋을 기리며 헌화와 분향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지난 1988년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 승객을 태운 서해훼리호가 위도 파장극한에서 격포항으로 항하던 중 높은 파도와 거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회항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침몰한 비극적인 사고이다.

이 사고로 인해 58명의 위도면 주민을 포함한 탑승객 222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이를 추모하기 위해 1989년에 사고해역을 정면으로 바라

보고 있는 진리 연못 끝에 위령탑을 건립하여 매년 10월 10일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다.

위도 위령탑보존회(신명)는 "매년 위령제 준비를 하면서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으며 긴 세월이 흘러 유족들도 많이 돌아가시면서 위령제가 해마다 약소하게 치러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날의 참사에 대한 교훈을 다음 세대에 일러야 하기에 매년 엄숙한 마음으로 위령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다시는 모두에게 상처로 남을 대형 참사가 부안군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힘쓰는 부안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정읍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시는 정읍로컬사업단과 함께 구절초 테마공원에 '정읍시 구절초 꽃축제 단풍미인 농특산물 대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절초 꽃축제를 방문한 관광객이 정읍시의 우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판로를 연 것이다.

앞서 시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한 '2019년 농산물 테마형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에 선정돼 2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장터에는 22개의 생산자 단체·영농

법인이 참여해 시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 쌀과 복분자주, 귀리, 포도, 단감 등 지역 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150여 개의 품목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있다.

장터는 구절초 꽃축제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직거래 장터 개장으로 구절초 꽃축제 방문 관광객에게 정읍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건의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위원장 이영택)는 10일 정부세종청사의 농림축산식품부 간격지농업과를 방문하여 농림축산분야 새만금 기본계획(MP) 반영 신규사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새만금지원협의회 의회 면담요청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하여 성사된 것으로 새만금지원협의회 1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지난 8월의 제3차 회의에서 발의된 신규사업 취지를 전달하고 농림축산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건의된 주요 사업내용은 새만금 MP 변경과 관련된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조속화, △농생명용지

말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새만금지원위원회 신속 상정 의결, △농생명용지 생태 숲 벨트 구축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계화산 휴양형 관광거점 조성 등이며 그 외동진내고 방수제도로 개발 등도 추가로 건의되었다.

이영택 위원장은 "새만금사업 초기부터 보여준 농림축산식품부의 투자에 감사드리고, 이번 건의내용이 새만금사업에 적극 반영되어 부안군이 새만금의 한 축이 되기"를 당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는 앞으로 도 새만금 유관기관에 기본계획 변경 건의를 지속해나기며 부안군과 새만금의 공동발전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부안강산뽕주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

부안강산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80
www.gangsanwine.com